

스페인, 電子計算機 輸入需要 擴大展望

— 올부터 체크프라이스制 철폐,
국내생산 中斷 움직임 —

지금까지 스페인의 国内 電子計算機産業 육성을 위해 스페인 政府가 電子計算機 輸入에 있어 체크프라이스制度를 실시했는데, 81년 末로 그 실시시한이 끝나게 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연 30만台的 生産施設을 가지고 있던 스페인에서는 유일한 電子計算機 메이커인 Texas Instruments, S. A. 社가 生産을 중단하고 대신 이탈리아에 있는 年 900만개 生産施設을 활용하여 輸入을 하되 輸入單價 및 市販價格을 인하할 움직임이다.

현재 스페인에서 學生用 및 家庭主婦用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포켓用 電子計算機의 消費者價格은 日製 Sanyo Solar의 경우 Pt. 4, 800 이고, Texas Instruments에서는 日製 Sanyo Solar의 60% 수준인 Pt. 2, 790이나 앞으로 Pt. 2, 000이하의 싼 電子計算機를 들여올 전망이다. (US弗 1 = 97. 84Pt.)

이와같이 스페인政府에서 制度的으로 스페인 電子計算機産業을 육성하려 했으나 실패한 이유는 스페인에 4개의 自由貿易地帶(카나리아, 멜리아, 세우타 및 안도라 : 안도라의 경우 스페인 영토는 아니나 같은 生活圈內에 있음)가 있어 25%이상의 関稅와 其他 附帶費用을 합쳐 100% 이상의 높은 稅制上的 혜택으로 인해 外國産 電子計算機가 이곳을 통해 輸入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페인에는 電子計算機 메이커가 Texas Instruments, S. A. 에서 年 30만개를 生産하는 것 외에는 다른 生産業체가 없으며, 그나마 電子

計算機에 대한 체크프라이스制度가 철폐되는 82년부터는 生産을 중단하고 輸入을 할 계획이다.

80년도 스페인의 電子計算機 輸入動向을 보면 총 109만 8, 816개, Pt. 16억 1, 565만 6, 000(약US弗 2, 253만 1, 000)으로 79年度 114만 9, 580개, Pt. 16억 6, 315만 8, 000(약US弗 2477만 7000)보다 4.4%감소했다. 그리고 80年度에 면세지역인 카나리아 군도, 멜리아 및 세우타에 輸入된 量은 전체의 84.5%인 92만 8, 938개 였으나 金額으로는 55.5%인 Pt. 8억 9654만 1, 000(약 US弗 1, 250만 3, 000)이었다.

國別 輸入動向을 보면 80년도 總輸入量의 88%인 96만 7, 539개, 總輸入額의 82%인 Pt. 13억 2379만 3000을 日本이 輸出했으며, 韓國은 數量面에서 2.3%인 2만 5, 568개 金額面에서 0.6%인 Pt. 1, 030만 4, 000을 輸出했다.

80年度 스페인의 電子計算機 輸出動向을 보면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한 실정으로 총 1만 5, 427개, Pt. 6, 938만 6, 000을 輸出했으며, 주로 赤道기니, 앙골라, 세네갈 등 아프리카 여러나라에 輸出을 했다.

이상과 같은 輸出入構造를 볼 때 스페인 本土에 있어 심한 輸入規制를 피해 自由貿易地帶를 통한 電子計算機 輸出方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 스페인의 電子計算機 輸入実績

(單位 : 數量 : 千個, 金額 : Pt. 백만)

品 種	1979		1980	
	數量	金額	數量	金額
電子計算機 (計數型的 것)	1,000	1,041	921	930
電子計算機 (計數型 以外の 것)	85	402	150	655
其他 電子計算機	63	219	26	29
合 計	1,149	1,663	1,098	1,615

[資料 : 스페인 関稅廳統計]

● 海外電子市場情報

● 스페인의 電子計算機 國別 輸入動向 (1980年)

國名	數量(個)	金額(Pt. 천)
日本	967,539	1,326,793
싱가포르	9,173	73,086
홍콩	31,918	62,181
美國	6,091	60,730
自由中國	36,484	29,654
이탈리아	1,424	15,388
韓國	25,568	10,304
其他	20,619	40,520
合計	1,098,816	1,615,654

[資料: 스페인 關稅廳統計]

日本 마이컴市場 急伸張

마이컴의 普及速度가 빠른 것을 나타내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마이컴入門”의 著者이며 “미스터半導體”로서 유명한 日本電氣의 大内淳義부사장이 언젠가 어느 業界団体로부터 마이컴에 대해 講演을 부탁받았다. 승락한 大内씨는 곧 部下에게 마이컴이 사용되고 있는 商品을 지금으로 list-up 하도록 명했다.

다음날 마이컴 利用商品을 열거한 큰 表가 작성되어 있었다. 大内氏는 이 표를 보고 기절할 뻔 했다. 「이렇게 많은 商品에 마이컴이 사용되고 있다니! 마이컴을 안쓰는 業種은 없지 않은가? 이럴줄 알았으면 일부러 List-up 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렇더라도 내가 모르는 分野까지 마이컴이 들어와 있다니!」 미스터 半導體도 降服했다는 이야기다.

우리들의 주위를 둘러보면 電子卓上計算機, 時計, 카메라, ELEVATOR와 駅의 自動車票販売機, 불필요한 가솔린을 일체 사용않는 省에너지 自動車……「이런 것에도 마이컴이」라고 말할 정도로 마이컴의 應用分野는 넓어지고 있다.

家電業者는 「마이컴附着」을 Catch phrase로 하는 것은 벌써 旧時代라고 宣文句에도 쓰지 않게 되었다.

松下電器産業의 域阪俊吉전무는 이렇게 말한다. 「20년전에는 洗濯機 등 모터를 사용한 家電製品이 한 집에 몇개나 있는지가 文化生活의 척도였다. 지금은 마이컴 응용製品이 몇개 있는지를 묻는 時代이다. 마이컴은 소리없이 人間生活에 스며들어 숨은 힘이 되고 있다.

마이컴 제 1호가 世上에 나온 것은 1971년 12월의 일, 美國 半導體産業의 中心地 「실리콘계곡」의 인텔社가 電卓用으로 開發했다. 그 인텔社의 R. 노이스부회장이 「마이컴의 應用分野는 지금 2만 5,000品目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한다. 마이컴이 왜 이렇게 급속히 EElectronics革命의 主役의 地位에 올랐을까?

그것은 마이컴이 손바닥에 오를만큼 작으면서 計算이나 記憶과 같은 컴퓨터로서의 필요한 機能을 갖는 「知能部品」이기 때문이다. 10년전에 오늘의 마이컴의 發展을 예상한 筑波大學의 森亮一교수는 「마이컴은 機械나 장치속에 살고 있는 요술쟁이 같은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 部品을 組合하면 人間과 같이 機械나 장치의 관리를 해준다. 마이컴이 그 特性을 武器로 무한한 應用分野를 開拓한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마이컴은 LSI(大規模集積回路)라고 하는 일종의 부품이므로 기계内部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제 2차 世界大戰後 얼마 안있어 人間の 두뇌의 일부를 대신하는 作用을 하는 것으로 처음 등장한 컴퓨터는 무게가 약 30톤, 가격은 수십 억円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과 거의 같은 能力을 갖는 마이컴의 무게가 불과 10g, 가격은 1개에 수천円에 불과하다.

半導體技術이 놀라운 進보를 한 結果 大型 컴퓨터를 小型部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마이컴의 性能은 이 1~2년에 加速度的으로 향상하고 있다.

마이컴의 計算記憶能力은 컴퓨터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情報量의 최소단위인 「비트」로서 표시된다. 美國의 인텔社가 최초로 開發한 것은 4 bit 마이컴이었다. 그후 情報處理速度와 入出力機能을 개선한 8 bit를 거쳐서 81년부터는 16 bit 時代가 개막되었다. 16bit 마이컴은 計算能力이 높고 미니컴퓨터 市場을 석권할 것 같다.

日本電氣, 日立製作所, 東京芝浦電氣, 富士通…… 日本을 代表하는 半導體메이커의 마이컴生産은 應用分野의 확대와 함께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周辺IC까지 포함시킨 마이컴市場은 1981年度에도 前年度對比 50% 이상의 높은 신장이 전망되며 판매액은 2,800억圓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日本の 81년도 半導體市場은 약 1조圓으로 보고 있으니 그 1/4을 차지하는 셈이다.

어느 半導體메이커도 「80年代 前半의 마이컴市場은 年率 50%의 성장이 계속된다」고 일찌된 전망을 하고있다. 마이컴事業의 경쟁은 지금부터 더욱 심해질 것이다.

거기에 따라 마이컴의 技術革新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마이컴의 應用分野는 產業界 뿐만 아니라 政治·行政을 포함한 우리들의 社會生活, 個人生活의 자세까지도 크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마이컴혁명은 지금 시작했을 뿐인 것이다.

中共, 黑白TV 輸入禁止

—外貨節約·自國産業保護 目的—

中共政府는 모든 購買代行機關에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을 中止하고 주문을 억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外貨를 절약하고 國內 TV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싱가포르도 79년부터 12만台的 TV를 中共에 輸出했는데 80년의 輸出実績만도 US弗 2,500만

에 상당하고 있다. 日本의 히다찌는 79년부터 80만台的 TV를 輸出해 왔지만 82년 3월에 船積되는 주문이 마지막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共의 이러한 輸入금지 조치는 녹음기, 라디오 및 同部品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

中共의 신문들은 數個月전부터 당국의 조치에 대해 옹호하고 나선바 있다. 지난해 海外貿易 構造의 地方分散化 조치는 地方機關이 上部의 허가없이 輸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어떤 機關에서는 직접 그들의 製品을 外國의 消費財와 교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제 北京은 이러한 類의 外貨流出도 철저히 단속하려 하고 있다.

한편 中共의 TV生産은 79년에 130만台 生産에서 80년에는 250만台 生産으로 증대되었는데 81년에는 500만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半導體 등 市場開方 촉구

—美下院 公聽회서 尙日 비난 빚발—

최근 개최된 美下院의 公聽회에서 半導體業界로부터 심한 尙日 비판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半導體業界 대표는 「日本の 半導體메이커는 美國을 비롯, 전세계로 100% 진출할 수 있으나 美國의 메이커들은 그렇지 못하다. 日本市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日本市場의 閉鎖性을 맹렬히 비난하고 日本이 半導體市場을 개방하도록 촉구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인터내셔널·렉티파社の A. 리드副社長은 전세계의 半導體市場을 美·日이 兩分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美國은 外國메이커에 대해 投資를 포함, 市場을 개방하고 있으나 日本은 경쟁국에 대해 市場을 개방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년에 美·日間에 합의된 關稅引下도 日本보다는 美國측의 노력으로 실현되었다고 밝히

● 海外電子市場情報

고 「關稅제도가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關稅가 철폐됐다 해도 日本市場이 개방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尙日 不信을 털어놓았다.

同副社長에 따르면 日本의 사원들은 會社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나머지 外國製品을 쉽사리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日本市場의 閉鎖性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美政府와 議會는 必要的한 法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共, 上海에 大規模 브라운관 工場착공

—日本·中共 友好, 마이크로 컴퓨터
技術交流展 開催—

中共 최대의 TV브라운관 생산공장이 上海에서 착공되었다.

同工場은 黑白TV用 12인치 브라운관을 年산 400만개 생산할 계획인데, 생산설비는 美國에서 輸入한다.

한편 이공장은 83년에 완성될 예정인데 앞으로는 9~25인치의 黑白TV 브라운관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日·中共友好 마이크로 컴퓨터 技術交流展示會가 最近 北京勞動文化宮에서 開催되었다.

이展示會는 양국의 컴퓨터事業의 交流와 協力を 促進할 목적으로 열렸는데 日本 電子工業振興協會가 10社를 조직하여 參加하였다.

對스위스 電管進出, TV輸出 先行돼야

—電管 別途 輸入없이 TV
輸入時 豫備部品으로 供給—

스위스 電管市場의 우선적 특징은 먼저 이나

라의 自体生産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한 電管이 別途 輸入, 販賣되는 것이 아니라 TV製品의 輸入時 Spare부품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電管市場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交易実績을 보면 80年 현재 輸出入 합하여 약 S.Fr.160만(약 10만대에 달하는 TV總輸入 実績의 약 5%에 해당)의 미미한 실적인데, 이중 西獨과 荷蘭이 輸入에서는 76.8%, 輸出에서는 67.2%를 점유하고 있어 여타 供給國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輸出은 再輸出品으로 약S.Fr.40만선의 소규모이다. 極東에서는 日本이 유일한 供給國이며, 그밖에 美國을 제외하면 모든 交易先은 EC國家들로 歐洲市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電子管의 輸出入實績(스위스統計 CCCN 8521.10)
(單位:金額-S.Fr., 占有率-%)

國 別	1980		1979	
	輸 入	輸 出	輸 入	輸 出
總 額	1,169	433	1,286	358
西 獨	625	291	643	300
베레누스	133	83	78	0.1
화 란	272	—	348	—
프 랑 스	47	0.2	55	10
이 태 리	12	43	—	—
英 國	24	—	8	35
日 本	21	—	37	—
美 國	26	9	108	3

[資料:스위스 聯邦關稅廳 統計]

市場의 특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체市場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TV製品과 같이 Spare部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TV市場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최대 공급메이커는 Philips(西獨, 荷蘭)와 Video-Color-Röhren(이탈리아, 프랑스, 西獨)이며, 日本에서는 Toshiba, Sony 등이 진출하고 있다. 特記할 만한 것은 Televita Tanner

AG라는 스위스회사가 中古電管을 再生産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이다.

이 製品에 대한 관세율은 100kg당 一般關稅率이 S.Fr.250, GATT 關稅率이 S.Fr.100이지만 EC.EFTA國家들은 無關稅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開途國에도 一般特惠關稅가 공여되고 있어 關稅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同製品 輸入 및 輸出이 歐洲에 거의 다 편중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開途國의 진출실적이 전혀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特惠關稅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電管의 對스위스 輸出은 TV 등의 본격적 진출하에서만 가능하며, 위의 문제점이 先行되지 않는 한 접근이 어려운 市場으로 평가된다.

日, 10月中 VTR 生産 出荷 100만台 돌파.

— 家庭用好調, 歐美地域 輸出偏重 —

日本電子工業會(會長: 藤貞和)가 밝힌 10월 중 컬러TV 및 家庭用 VTR生産 및 出荷실적을 보면, 컬러TV는 生産量이 前年同月比 12.5% 증가된 100만 4,000台이며, 出荷는 7.1% 감소된 93만 6,000대로 나타났다. 家庭用 VTR의 경우는 生産이 前年同月比 133.3% 증가된 112만 6,000台, 出荷가 136.4% 증가된 103만 6,000대로 日本 國內에서만 10월까지의 出荷量이 115만 5,000대로 生産 및 出荷가 10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중 컬러TV 輸出은 8.2%가 증가된 43만 4,600대로 伸張率이 둔화되었으며, 國內 出荷量이 2%가 감소된 53만 3,000대를 기록했으나 이에 비해 家庭用 VTR은 변함없이 好調를 보여 104만 6,000대 出荷 中 輸出이 142.4% 증가된 약 91만 6,000대로 美國地域 輸出構成比가 34%, EC地域 構成比가 38%를 점유했는데, 國內 出

荷는 17만 7,000대로 前年同月比 84.4%가 증가되었다.

금년 1~10월까지 累計는 컬러TV 生産이 前年比 9.4% 증가된 952만 5,500대, 出荷가 前年比 8.1% 증가된 908만 9,000대이며, 國內 出荷가 504만 3,000대로 500만대를 넘어섰지만 이 실적은 前年比 96.4%에 해당하는 것이다.

家庭用 VTR은 生産이 前年比 117% 증가된 730만 6,600대, 出荷가 111.4% 증가된 697만 9,200대인데 國內는 前年比 76.3%가 증가된 115만 5,000대로 集計되었다.

美, 通信裝備 輸入規制 움직임

美國은 최근 美國産 通信裝備가 일부國家 특히 日本市場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대한 보복책으로서 美國製品이 外國에서 美國에 진출해 있는 모든 外國産通信裝備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받지 못할 경우 차별대우를 가한 特定國家의 美國內 製品販賣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法案을 美下院 通信小委員會에 제출,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美國의 同品業체들이 현재 日本에서 부당한 대우에 직면해 있는 사실을 日本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美下院의 關係委員會를 극도로 保證主義化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同法案에는 日本메이커에 대한 報復條項까지 첨부돼 있어 日本의 通信機器 및 相關장비의 對美 輸出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日本은 美國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하여 同品の 對美 輸出國과 접촉, 共同請願書를 美國의 關係기관에 발송하는 한편 同法案의 美國의 關係기관에 발송하는 한편 同法案의 美下院 通過를 저지하기 위해 82年초에 代表團을 구성, 美國에 파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